

# 야구 챔피언 향한 열정... 태평법률사무소 '3전4기' 도전

아로마라이프배 제9회 무등기 광주·전남 사회인 야구대회 개막

대영토건·원포인트이엔지·태평법률사무소·전대OB 8강 진출  
원포인트이엔지·전대 OB 콜드승... 2주차 경기 7·8일 합평야구장

무등기 9번째 우승을 향한 광주·전남 사회 야구인들의 도전이 시작됐다.

광주일보사·아시아문화가 주최하는 제9회 아로마라이프배 무등기 광주·전남 사회인 야구대회가 1일 합평 야구장에서 개막했다.

지역 사회 야구인들의 '가을잔치'인 이번 대회는 무등리그와 광일리그로 나눠 진행되며, 무등리그에서 먼저 승자가 가려졌다.

대영토건, 원포인트이엔지, 태평법률사무소, 전대OB가 승리팀이 되어 8강 경기를 치르게 됐다.

대회 첫 경기에서 무등기의 실력파 정진산업스카이의 대진표를 받았던 대영토건은 기권승으로 바로 8강에 진출했다.

두 번째 경기에서는 원포인트이엔지가 4회 콜드승을 장식했다.

MD야구단을 상대한 원포인트이엔지는 1회말 2점을 뽑은 뒤 선발 김기갑의 호투를 앞세워 경기 분위기를 끌고 왔다.

김기갑이 4회를 4피안타 무사사구 무실점으로 막으며 마운드 싸움을 이끌었고, 타석에서는 KIA 출신의 김지성이 멀티히트와 함께 2타점 2득점 1도루를 기록하며 수훈선수가 됐다.

태평법률사무소의 무등기 '3전 4기'도 시작했다. 지난 가을을 무등기에서 3년 연속 준우승의 아쉬움을 삼켰던 태평법률사무소는 광주버스터즈와의 경기에서 기권승을 챙기면서 힘들지 않고 8강에 진출했다.

1994년생부터 1997년생 젊은 선수들로 구성된 피닉스는못말려는 전대OB의 노련함에 막혀 다음을 기약하게 됐다.

피닉스는못말려는 1회초 2점을 먼저 뽑아냈지만 이어진 1회말 수비에서 바로 2-3 역전을 허용했다.

◆전적(1주차·무등리그 16강전)

◇1경기(기권승)

대영토건 1111111-7

정진산업스카이 0000000-0

◇2경기(4회 콜드승)

MD야구단 0000-0

원포인트이엔지 2107-10

▲승리투수 : 김기갑

◇3경기(기권승)

태평법률사무소 1111111-7

광주버스터즈 0000000-0

◇4경기(5회 콜드승)

피닉스는못말려 20200-4

전대OB 3343-13

▲승리투수 : 장겸손

2회 수비에서도 3실점을 한 피닉스는 3회초 2점을 추격했지만, 전대OB의 공세를 막지 못하면서 승리를 내줬다. 전대OB는 3안타를 터트린 톱타자 박병수를 앞세워 13-4, 5회 콜드승을 거두며 기분 좋게 첫 경기를 끝냈다.

무등기 2주차 경기는 오는 7일과 8일 합평 야구장에서 이어진다. 7일에는 무등리그 16강전이 치러지며, 8일에는 광일리그 일정이 시작된다.

한편 이번 대회는 광주광역시야구소프트볼협회가 주관하며 전라남도체육회가 후원한다.

아름다움의 가치를 강조하는 기업 아로마라이프(회장 이화재)와 KIA 타이거즈도 지역 사회인 야구인들의 잔치에 힘을 보탠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광주일보사·아시아문화가 주최하는 아로마라이프배 제9회 무등기 광주·전남 사회인 야구대회가 1일 합평야구장에서 개막했다. 무등리그 16강전 피닉스는 못말려와 '전대 OB' 팀의 경기에서 전대 OB팀 공격이던 3회말 1사 2,3루 박병수 타석 때 3루주자 박수환이 슬라이딩하며 홈에서 세이프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 임기영, 오늘만 같아라



KIA, 롯데전 4-2 승리... 신·구 조화에 최근 3연승  
임, 1년만에 QS... 최형우 KBO 10번째 3100루타

'호랑이 군단'이 신·구 조화로 신바람 3연승을 달렸다.

KIA 타이거즈가 1일 광주-기아 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롯데이언츠와의 경기에서 4-2로 승리하며, 3연승을 기록했다.

지난 30일 4안타소의 황윤호를 앞세워 NC다이노스에 8-2 승리를 거뒀던 KIA는 전날 경기에서는 터너(7이닝 2실점)와 터커(결승 투런)의 동반 활약으로 4-2로 이겼다.

1일에는 선발 임기영(사신)과 4번 타자 최형우가 주인공이었다.

임기영은 6회를 7피안타 1볼넷 6탈삼진 2실점으로 막으면서 지난해 7월 31일 광주롯데전(6.1이닝 1실점) 이후 처음 퀄리티스타트를 기록했다.

최형우는 1-2로 뒤진 3회말 1사 1루에서 롯데 선발 서준원을 상대로 우중간 담장을 넘기면서 역전극을 연출했다. 이 경기 전까지 3100루타에 하나를 남겨뒀던 최형우는 4루타를 한 번에 챙기면서, KBO리그 통산 10번째 3100루타도 작성했다.

임기영이 1회초 2사에서 볼넷에 이어 도루를 허용했지만 4번타자 윌슨을 헛스윙 삼진으로 처리하면서 산뜻한 출발을 했다.

1회말 KIA 공격에서 선두타자 박찬호가 우전안타에 이은 도루로 공세를 시작했다. 황윤호의 땅볼로 3루로 향한 박찬호는 터커의 우전 안타로 홈에 들어왔다. 2회를 삼자범퇴로 처리한 임기영이 3회 1사에서 연속 안타로 위기에 몰렸다. 조흥석을 시작으로 손아섭-강로한-전준우의 안타가 이어지면서 1-2로 KIA가 리드를 내렸다. 하지만 3회말 KIA가 '한방'으로 응수했다.

1사에서 터너가 우전안타로 출루했고, 최형우가 서준원의 146km 직구를 잡아당겨 역전 투런을 만들었다. 타선의 지원을 받은 임기영은 5회 1사 1루에서 전준우를 상대로 병살타를 유도하는 등 추가 실점 없이 6회를 막고 마운드에서 내려갔다.

최형우가 볼넷으로 출루한 6회말 1점을 보탠

KIA는 이후 박준표와 문경찬으로 남은 3이닝을 무실점으로 처리하면서 4-2 승리를 지켰다.

2이닝을 1피안타 3탈삼진 무실점으로 책임진 박준표가 12번째 홈드를 기록했고, 문경찬은 선두타자 신봉기를 출루시켰지만 이후 세 타자를 범타로 처리하면서 19번째 세이브를 신고했다.

임기영은 "몸을 풀면서 느낌이 괜찮았다. 자신 있었다"며 "(한)준수가 편하게 리드해줬다. 공이 몰려서 3회 연속안타를 맞기는 했지만 (최)형우 선배님이 홈런 쳐주고 거기서 또 집중하고 그래서 좋은 결과가 나온 것 같다"고 이야기했다.

임기영은 이번 등판을 앞두고 '힘'에 신경 썼다. 타자의 싸움을 위해 키칭 도중 멈추는 동작을 넣었던 부분을 빼고 세게 던지자는 느낌으로 힘을 더했다.

임기영은 "캐치볼도 많이 하고 폼도 세재우 코치님과 이야기하면서 다리 드는 것부터 바꿨다. 던지면서 불안한 것은 있었는데 막상 던져보니 스피드도 잘 나오고 체인지업도 좋았다"며 "그동안 던지기 바빠서 공을 밀어 넣는다는 느낌이 많았는데 코치님께서 직구보다 변화구를 더 세게 던지자는 느낌으로 하라고 해서 변화를 줬다. 기복이 많은데 남은 시즌 오늘처럼 던지고 싶다"고 밝혔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 덕아웃 T 특특 프로 데뷔 한준수 "떨려서 숨이 안쉬어져요"

▲광장하고 대단한 선수다 = 터너가 모처럼 연승을 기록했다. 터너는 지난 31일 롯데와의 홈경기에서 선발로 나와 7이닝 5피안타(피홈런) 1볼넷 7탈삼진 2실점(1사책점)의 호투로 4-2경기의 승리투수가 됐다. 앞선 SK원정경기에 이어 다시 한번 승리투수가 된 터너의 뒤에는 터커가 있었다. 터커는 터너가 등판한 두 경기에서 연달아 홈런을 기록했다. 모두 승리를 확정하는 결승 홈런이었다. 경기가 끝난 뒤 "좋은 승리였다. 팀원들이 잘해줘서 승리할 수 있었다"고 언급한 터너는 터커에 대한 질문을 받고 "광장하고 대단한 선수다"며 웃었다. 이에 터커는 "항상 타석에 들어갈 때마다 안타를 치려고 하고 있다"며 "꾸준함이 중요한 것 같다. 나갈 때마다 최선을 다하고 있다. 꾸준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숨이 안 쉬어질 것 같아요 = 9월 확대 엔트리가 적용되면서 5명의 선수가 1일 엔트리에 새로 이름을 올렸다. 투수 이준영, 홍건희와 함께 야수 오선우, 이우성 그리고 포수 한준수가 엔트리에 등록됐다. 고졸 2년 차 한준수는 이날 포수 겸 8번 타자로 선발 출장하면서 프로데뷔전을 치렀다. 선발로 데뷔전에 나선 한준수는 경기 전 "벌써 긴장이 된다. 숨이 안 쉬어질 것 같다"며 걱정을 했다. 하지만 이날 배터리를 좋은 호흡을 과시하면서 임기영의 퀄리티스타트에 기여했고, 데뷔 타석에서 2루타를 기록하는 등 2루타 2개도 만들어냈다. 경기가 끝난 후 한준수는 "너무 긴장해서 배가 아프다"며 "오늘 어떻게 했는지 중간중간 기억이 나지 않는다. (임)기영이 형 공이 좋아서 편하게 했다"고 첫 선발 경기 소감을 밝혔다. 또 "타석에서는 오히려 편했다. 무조건 살아나가겠다는 생각으로 했는데 나도 놀랐다"고 웃었다.

▲빨리 야구하고 싶으니까 = 혹서기가 지나가면서 경기 개시 시간의 변화가 있었다. 9월부터는 토요일 경기가 5시에 시작되고, 일요일에는 오후 2시에 플레이볼이 선언된다. 1일 오후 2시에 경기가 시작되면서 KIA 선수들은 일찍 경기장에 출근했다. "피곤하다"며 훈련을 진행한 선수들. 황윤호는 "9시에 알람을 맞춰놨는데 일찍 깬다"며 "다리가 저렸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옆에 있던 유재신의 생각은 달랐다. 유재신은 "빨리 야구하고 싶어서 일찍 깬 것 아니냐"면서 웃었다. 황윤호는 지난 30일 NC원정에서 4안타 경기를 하는 등 최근 좋은 모습으로 선발라인업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